

재생산 활성화 화학제품 타격 우려

정부, 재제조산업 육성 본격화 ... 에너지·자원 절약효과 극대화 기대

경제정책조정회의는 4월1일 산업자원부가 상정한 <재 제조산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에너지 절약, 원자재 등 자원절감 및 고효효과가 높은 재 제조산업을 적극 육성기로 결정했다.

재 제조(Remufacturing)는 사용(Used)한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해 분해,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재조립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국내 재제조산업 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제조 제품·부품에 대한 품질관리·품질인증시스템 구축, 시험사업 추진, 전담연구기관 등을 운영하고 2005년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제조는 이미 사용한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해 신제품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것으로 원재료, 노동력, 에너지 측면에서 약 80%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으며, 재료를 녹이는 등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Recycling)에 비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자동차부품(교류발전기·스타트모터·자동변속기 등),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인쇄기, 일회용 카메라 등 50여개 품목이 재제조되고 있다.

세계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은 대부분 재제조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재제조산업은 7만3000여개 관련 기업의 매출이 53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다임러벤츠, BMW, 폭스바겐 등도 A/S 시장에서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신제품보다 싼 재제조부품 공급을 위해 재제조 생산라인을 직접 또는 OEM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고객의 차량유지비 절감을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순정부품 유통체계를 적극 활용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재제조제품의 품질은 신제품과 같은 수준이나 가격은 50-75% 수준으로 메리트가 있고, 자동차·복사기 등의 A/S 시장에서 재제조 제품(부품)이 가격이 비싼 신제품 및 부품보다 경쟁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재제조제품의 에너지 및 원재료 사용량은 신제품의 9-14%에 불과해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07>